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변 유효활용

_ 후쿠오카시 수상공원

Utilization of Riverfront as a water amenity facility

_ Suijo Park in Fukuoka City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아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보행자전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Public Space”라고도 불리우는 「공공공간」의 재생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도시환경디자인학자 나루미 쿠니히로(鳴海邦碩)씨는 그의 저서 「도시의 자유공간(都市の自由空間)」에서 공공공간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자유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공공시설」·「공개공지」, 그리고 도로법의 따른 「도로」등,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등, 같은 공공공간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선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왔고, 이는 상기의 나루미씨의 「자유공간」의 개념과는 다소 대립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공공공간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법제도 등의 개정과 각종 사회적 실험 및 지역사회의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이 좀더 잘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하천법이 제정되어, 1970~80년대에 걸쳐 하천변의 공공공간의 대대적인 공공공간 정비가 이루어 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함께 공공공간에 대한 다양한 파일럿 사업 및 사회실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과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 졌는데, 보행자천국 등 도로 상의 활용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천 또한 일시적 점용을 통한 활기창출의 대안으로서, 히로시마(広島)의 모토야스가와(元安川)강과 교바시(京橋川)강을 따른 오픈카페(1998년) 등, 일시적인 이용 및 활용의 사례가 늘어나,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준칙(1999년)」과 「하천부지 점용허가 준칙의 특례장치에 대해서(2004년)」 등이 공표되었다. 이후 최근에는 오사카(大阪)키타하마(北浜)테라스 등과 같이, 일시적인 활동에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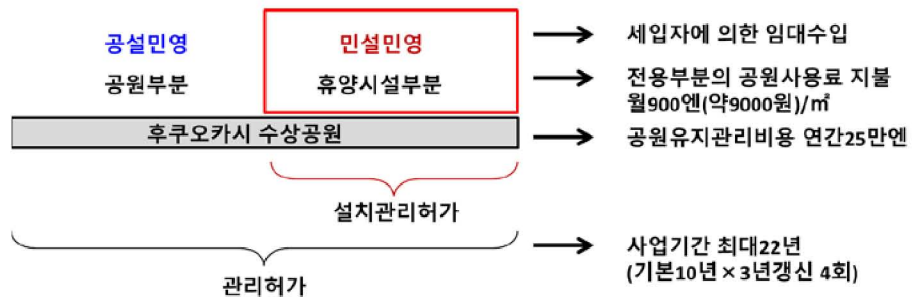


그림 1) 사업 스킴(scheme) (출처, 제공자료)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준칙」이 2005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오픈카페 등을 특례로서 인정하는 장치」로서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하천부지에서의 음식점 관련시설과 영리적 활용, 상시점용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키타하마 테라스에서는 파일럿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8개의 점포가 민유지에서 하천구역(공유지)까지 테라스를 걸쳐서 설치하는 등, 관민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천변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움직임과 그에 따른 제도적 반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번에 살펴볼, 후쿠오카(福岡)시 수상공원은 이러한 하천변에 대한 친수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하천변 공간에 상설시설을 설치하여, 상업시설과 공원을 일체적으로 정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시 중심부인 텐진(天神)지역의 중심지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상공원은 규슈(九州) 제일의 환락가라고 할 수 있는 나카수(中洲)의 호안부에 위치한다. 부지면적은 1,236㎡이고 부지형상은 나카가와(那珂川)강과 야쿠인신카와(薬院新川)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으로 텐진과 하카다를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매우 적은 공원이었다

■사업진행방식

후쿠오카시가 2013년 2월에 공원정비·관리운영사업의 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여, 니시테츠(西鉄)철도회사 그룹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사업기간은 최대22년(당초10년간, 3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4회가능)으로 휴양시설은 민간민영방식¹⁾, 공원시설은 공설민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휴양시설에 있어서는 영업면적에 대해 1㎡당 월 900엔(약 9,000원)을 후쿠

1)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근거하여 후쿠오카시가 비용부담을 실시하여 정비한다. 다만, 설계 2,292,000엔, 시공 40,000,000엔, 유지관리 250,000엔/년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림 2) 건물외부 및 레스토랑 테라스 전경

오카시에 지불하는 형태로 제안을 실시하여, 후쿠오카시가 채택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15일에 오픈하였다.

■건축시설의 특징

니시테츠에서는 2층건물을 건설하고, 인기있는 레스토랑을 2개의 점포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공원 내에 건물을 건설하면 공원의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건물옥상을 공원과 일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²⁾. 당 시설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라는 측면과, 하천변 시설이라는 2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각각 새로운 시도로서 제안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과 시설의 일체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젊은 건축사의 아이디어를 통해 건물의 옥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태의 건물제안은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옥상부분은 공원전체와 일체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서 낮시간에 개방함으로써, 지붕상부공간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고, 공원부분과 옥상상부부분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에 대응하는 공원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벤트의 활성화

본 사업을 계기로 수상공원이 후쿠오카의 3거점인 「텐진에리어」·「하카타에리어」·「워터프론트 에리어」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활기와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회유의 거점으로서 그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지에서 '세계 제일의 아침식사'로 소개된 레스토랑

2) 본 부지의 면적은 1,236㎡이나 바로 옆에 선형으로 위치하는 니시나카수(西中洲)공원부지의 면적 821㎡과 합쳐서 이를 전체면적으로 하여, 도시공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제한 12%에 따른 247㎡의 건축면적, 용적율 400%(연면적 626.17㎡, 2층 + 옥상공원)로 건축시설을 실현시켰다. 이는 수상공원부지만으로 볼 때 도시공원상에는 세울 수 없는 규모의 시설이지만 옆의 공원면적과 합하여 레스토랑 등의 점포시설을 유치하여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건물면적을 확보한 것이 이번 수상공원 휴양시설의 민간유치가 가능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 옥상공원과 일체화 된 외부공원 전경

등, 명성있는 레스토랑을 유치하여 랜드마크적인 가치를 높였으며, 음악이벤트 및 음식이벤트, 다양한 단체와 연계한 요가와 홀라댄스, 그리고 공원지역를 넘어서 수변의 다양한 스포츠와 연계하고, 최근 수변의 활동가들(미즈베링_Mizbering)과의 연계 등을 실시하여, 수변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본 공원에는 하천으로 직접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수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공간만들기와 수상 액티비티를 실시가능하도록 고려하였으나, 실제로는 바다에 근접하여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때문에, 침수재해 등의 영향에 따라 부양교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친수공간정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현재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수상버스 발착장으로 빌려주는 등 도심속에서 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민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花村 武志, 福岡の水辺は水上公園から (特集 川を軸として地域の賑わいをつくる「かわまちづくり」), 河川, 72(7), pp.43-45, 2016
2. 후쿠오카 수상공원 관련HP: http://bulan.co/swings/water_park_in_fukuoka/